

# KUKJ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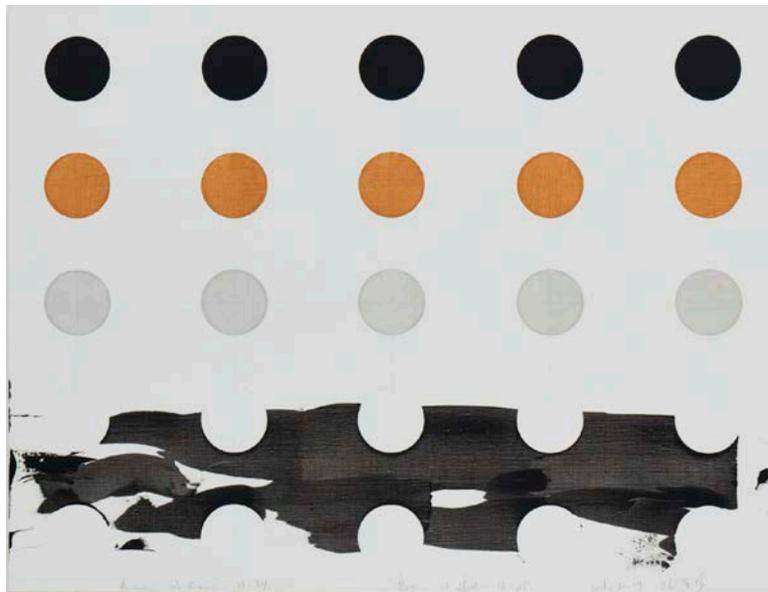
Press Release

## 김용익 개인전

기자간담회: 2016년 11월 22일 (화) 오전 11시 국제갤러리 2관

전시기간: 2016년 11월 22일 - 12월 30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2관 (K2)



얕게... 더 얕게... #16-85

2016

캔버스에 혼합재료

91 x 117 cm

사진: 박준형,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이제는 크리에이팅 (creating)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편집 (editing)으로서의 예술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더 나아가 '성장-창작'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수장(收藏)-편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기존의 '모던적 주체'에서 '해체적 주체'로 나아가며, 더 이상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작업을 재해석, 재구성, 재전유 (re-appropriation)해서 내 놓을 것이다.”

- 김용익

국제갤러리는 금년 마지막 전시로 김용익의 개인전을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관(K2)에서 개최한다. 국제갤러리는 한국의 현대미술사에서 독창적인 행보를 구축한 작가들을 동시대 관점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조명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 김용익의 개인전은 1970년대 모더니즘으로부터 80, 90년대의 개념미술, 민중미술, 그리고 공공미술에 이르는 한국미술의 현대사를 통해 실존적인 고민을 다루어온 그의 최근 2년간의 신작 30여 점을 선보이며, 나아가 단색화 이후 세대의 실천적 미술과 경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김용익 개인전의 주요 참여 작품들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제작된 평면작업으로서 <모더니즘의 묵시록>,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얕게... 더 얕게...>, <20년이 지난 후>, 그리고 <유토피아> 에 이르는 다섯여 가지의 연작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대표작들은 과거의 스케치 혹은 판화작업들을 캔버스로 옮긴 후 이를 재편집 및 재구성(editing)한 작품으로서 그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온 ‘땡땡이’ 시리즈를 계승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태동한 김용익의 ‘땡땡이’시리즈 회화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도식이라 여겨지는 원형의 반복되는 도상을 기반으로 작가가 써내린 생각의 파편, 고집임, 먼지까지도 작업의 일부로 포용한 평면 작업이다. 이는 지난 모더니즘 회화의 미학적인 추구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생각은 은유하며, 동시에 사회적 주제에 대한 사유의 흔적을 보여준다. 특별히 이번에 소개되는 신작은 밝은 색조의 반복적이고 경쾌한 리듬을 특징으로 김용익의 개인적 서사의 지난한 궤적을 지나 보다 희망적인 의미로 전유한다.

먼저 <모더니즘의 묵시록>은 모더니즘 회화를 전복시킴으로써 모더니즘의 종말을 보여주겠다는 다소 거창한 의미로 붙여진 제목이다. ‘땡땡이’ 작품의 이미지는 그리드(grid)에 뿌리를 둔 모더니즘의 상징적 도상과 흡사하지만 작가는 캔버스 위에 구멍을 뚫거나 물감 혹은 식물의 액즙을 발라 순수한 모던적 이미지의 발현을 방해한다. 이렇게 매끈한 무결점의 모더니즘 회화에 대한 일련의 제스처는 작가의 비판적 서사를 보여준다.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는 김용익이 근래 다시 재편집을 진행했던 1990년대 ‘땡땡이’ 연작의 소회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과거 작품의 ‘여운’을 회고해보는 한편 1990년대 작업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무엇’에 대한 추구가 반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얇게... 더 얇게... #16-83

2016

캔버스에 혼합재료

91 x 117 cm

사진: 박준형,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얇게... 더 얇게...>는 상당한 육체적 노동을 감내하며 매일 반복적으로 정해진 양의 캔버스 작품을 제작해온 결과 이후 나타난 캔버스 위의 얇아진 표면 효과를 두고 붙인 제목이다. 이는 지난 모더니스트에게 부여되었던 '모던적 주체'의 무게를 내려놓은 가벼운 '해체적 주체'의 변모를 암시하기도 한다.

'이 작품을 20년 후에 공개하라'는 작업노트에서 차용한 <20년이 지난 후>은 20년전 작품들에게서 발견된 오랜 시간의 켜와 이것이 발현하는 일종의 승고를 포함한다. 낡고 퇴색되었으며 때가 묻은 작품의 표면이 드러내는 역사는 앞으로 20년 후에도 유효함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유토피아>는 '이상향'이라는 뜻과 다르게 그리스어원의 'ou' 없음의 부정형과 지형학적 개념의 'topos' 에서 기원하여 시대적 의미의 완성형으로 변모해왔다. 작가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인 의미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이 작품 제목과 같이 '밝고 가쁨함'과 '아련한 공허감'의 필수불가결한 결합을 보여준다. 김용익은 진실과 허위, 행복과 불행, 미와 추가 그가 지나온 미술사적 시대와 현상에서 비롯된 과거의 돌파구 없는 비평적 접근이 잉태할 앞으로의 상쾌함을 기대한다.

이번 김용익의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일련의 신작들은 얇은 질감과 가벼운 색채가 주조를 통해 그간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과 주제를 지나 보다 '가벼움'과 '얇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때문에 이는 일견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작가의 비판적 태도의 무게를 상쇄한 또 다른 '재전유', 즉 이미 존재하는 관념의 주변 문맥 또는 맥락을 변화시켜 또 다른 의미의 관점을 다루는 작가의 동시대 미술의 비판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김용익, 2016

사진: 박준형,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김용익은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경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회화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1999년 대안공간 풀의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표로 재직했다.

김용익은 한국 미술의 주요 흐름을 거쳐 스스로 모더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작업세계와 기성의 제도권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시하며 방향을 모색해왔다. 동시대 미술의 복잡한 경향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질의해온 김용익은 이번 개인전을 통해 그 동안 윤리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로 진지한 메시지를 다루었던 모더니즘적 주체에서 벗어나 비교적 무게를 덜어낸 가벼운 '해체적 주체'로서의 변신을 시도한다.

1974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재학시절 천으로 제작된 <평면 오브제>시리즈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등단, 화단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1981년 작업을 박스에 '매장'시켜 전시에 출품하며 모더니즘 주류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노선을 선언했다. 이후 80, 90년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의 과도기적 양극화에 대한 국내 화단의 풍토를 지양하며 공공미술, 글쓰기 및 저서활동, 지역기반의 환경미술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미술을 둘러싼 생태와 제도, 공공의 영역에서 미술의 역할을 고민해왔다. 뿐만 아니라 단색화 이후 세대의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한 미술인으로 일컬어지며,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그의 독립적인 실천적 예술의 일부는 최근 일민 미술관에서 개최된 대규모 회고전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대표전시로는 2016년 《가까이... 더 가까이...》일민 미술관 회고전, 2014년 제 5회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12년 《SeMA 중간거리 2012: 히든 트랙》, 서울시립미술관, 2011년 《무통문명無痛文明에 소심하게 저항하기》아트 스페이스 풀 개인전, 2005년 《역동적 균형》제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2년 광주비엔날레, 1999년 성곡미술관 그룹전, 1983년 요코하마 미술관 그룹전, 1975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및 1979년에서 74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앙데팡당》전 등 다수에 참가한 바 있다. 대표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도쿄도 미술관 등 다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ID: kukjegallery | PW: kukje

경로: webhard.co.kr > 2016 김용익 개인전

**For press enquiries, please contact**

Zoe Chun | Communications Director

Tel: +82 2 3210 9885, +82 10 9601 5411

Email: zoe@kukjegallery.com

Sabinne Cheon | Communications Assistant Director

Tel: +82 2 3210 9821, +82 10 4439 0056

Email: sabinne@kukjegallery.com